

시 초

병사의 행군길

최 광

병사의 행군길

으스한 골짜기에 칼바람이 터졌다
잡스러운 모든것을 쓸어버릴듯
회오리치고 닥치고 내달으며
휘이익- 아츠럽게 귀청을 깨인다
양상한 가지들을 붙잡아 뒤흔들며
악-악- 아우성치는 칼바람! 칼바람!

얼얼하던 귀뿌리는 감각을 잃은듯
아프게 얼굴을 후려갈기며
들썩워지는 허이연 눈가루
그래도 우리는 노래를 부른다
설한풍이 휩쓰는 험한 산중에
결심품고 싸워가는 우리 혁명군...

그러면
눈성에 두터운 눈가마다에
빨찌산대오 바투 다가선다
사나운 칼바람 눈보라를 거스르며
꽤불마냥 타오르는 붉은 기발...
어깨너머 나뭇기는 백포자락들...

그날에 불어치던 엄혹한 칼바람이
병사의 가슴을 치고 두드린다
민족의 모진 아픔 묵묵히 견어안고
피로써 헤쳐가던 험험의 빙설천리-

고난의 눈보라 앞길을 막아서도
김대장 따르는 길에 새봄은 오리라
투사들 더운 가슴 불태우던 그 신념이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있나니
심장을 때리고 치는 그대들의 목소리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라!

아, 세월은 멀리로 흘러갔어도
백두의 설령에서 오늘의 행군길로
줄곧 뻗어오는 그대들의 억센 숨결
불타는 이 심장에 새겨안은 그 녀이
행군의 대오앞에 붉은기로 날린다
붉은 기폭엔 빛나는 원수별!

그날의 시련은 겪어보지 못했어도
선군령장 버려준 백두의 칼날을
가슴깊이 품어안은 이 땅의 새 세대-
우리는 **김정은**장군의 병사들!

열번 백번 쓰러진대도
천번 만번 다시 일어나
그이 그어주신 최후승리 한길에서
한치도 드림없을 전사의 이 신념!
병사들-**김정은**장군의 병사들아
곳곳이 이어가자! 백두의 행군길!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자!

병사와 추위

산판을 통채로 집어삼킬듯
사납게 덮쳐드는 뽀얀 눈가루
얼어든 볼을 사정없이 후려치며
기승치는 눈보라! 눈보라!
그래도 묵묵히 앞으로-
앞으로만 나아가는 행군의 대오!

갈개치는 눈보라에 숨은 꺾꺾 막혀도
허영게 성에불린 눈섭밑에선
억실한 눈동자를 웃고있구나!
오, 맞서보자 강추위! 강추위!
네가 감히 우리 앞길 막으려 하느냐

퍼렇게 성이 난 강추위
뿌득 뿌드득...
어금이를 악물고 치를 떠는듯
금시에 살점을 물어뜯을듯
사정없이 췌뿌리는 눈갈기! 눈갈기!

어허, 가소롭다 미련한 강추위!
네 아무리 악을 물고 기승을 부린대도
피끓는 심장이야 어이 얼구라
선군령장 지펴주신 훈련의 열풍속에
하나같이 호랑이로 길들여진 병사들
이쯤한 추위에 주저않을것이나

-아이쿠, 원통하다...
몸부림치고 태질하며
잉-잉- 울부짖는 강추위의 툭툭소리
모든것 모든것 얼구어버렸지만
병사의 심장만은 얼굴수 없으니

오, 울린다-
몰아치는 눈보라도 가릴수 없는
총잡은 사나이들의 꺾꺾 꺾 웃음소리
광란하는 강추위의 멍살을 비트는
호랑이의 통쾌한 노호소리가

그리움의 밤

울부짖던 눈보라도 지친듯 잠잠하고
컴컴한 하늘엔 흰눈이 푸실푸실...
행군의 휴식참!
그 누가 먼저 선창을 떴었는가
곤하게 잠들려는 밤대기를 흔들며
병사들이 부르는 그리움의 노래

이 한밤도 먼길 가실 원수님 생각하며
우리 마음 자욱자욱 간절히 따라섭니다...
아, 타끓는 가슴들 그리도 간절히
가달고가달는 기슭은 그 어디-
이밤이 늦도록 꺼질줄 모르는
저 멀리 불밝은 당중앙의 창가여

눈가마다 어리는 뜨거운것이
성에불린 속눈섭을 스프르 녹이누나
행복과 번영의 설계도 펼치시며
깊은 밤 이 시각도 잠 못드시는
자애로운 그 품이 그리워... 그리워...

그 창가에서 비쳐지는 불빛이
또 하루-
조국의 새날을 불러오고있음을
병사인 우리 어이 모르랴
아, 언제면... 내 언제면

그이 어깨우에 무겁게 실리운 짐
천만분의 하나라도 덜어드릴수 있을까

세차게 뛰는
뜨겁게 끓는
못심장이 터치는 분출이런가
행군의 이밤!
끝안을 메아리치는 그리움의 노래여
그 창문가에 피줄을 잇고
병사의 심장이 뛰고있지 않는가

오,
몸은 비록 천리에 있다 하여도
당중앙의 창문가에 목숨을 걸고
그이의 안녕을 지키여가는
아, 나는 병사-
최고사령부의 문전보초병!

가야 할 멀고먼 행군길우에
춤추며 내리며 쌓이는 눈송이
그 창가에도 눈은 내리리...
아되다오! 눈송이야 불타는 이 마음을
불밝은 창가를 조용히 두드려
머지않아 새날이 밝아온다고
이제 더는 깊은 밤 지새지 마시라고...

병사와 불무지

눈보라 사나운 행군의 밤
대기를 헤가르며 휴식나팔 울린다
그러면 뒤이어
하나... 둘...
어둠을 밝히며 타오르는 불무지

허리치는 눈속헤쳐 넘은 령은 그 얼마
고향집 따끈한 아래목인듯
얼어든 몸 훈훈히 덥혀주는 불무지여
이런 밤엔 의례히 생각나누나
철없던 어린시절 소박한 그 불무지

고향집을바자 몰래 꺾어와
불무지 피워놓던 동네아이들

새까맣게 구워낸 감자껍질 벗기며
밤은 언제 가는줄도 몰랐지
래일을 꿈꾸며 으쓱도 했더라

오, 정다운 고향은 아득한 멀리에
오늘은
눈보라 앞을 막는 험험산중에
조용히 피여오르는 불무지 불무지!
차거운 눈우에 아낌없이 부대끼며
병사들 피워온 불무지 없다면야
행복했던 그 시절의 추억이 있으랴

이 땅 위해 묵묵히 바치여가는
병사의 뜨거운 그 마음이

불길되어 활활 타오르는것이나
밤... 이런 밤...
병사는 행복하여라
이 땅의 병사들 피워가는 불무지가
고요히 잠들은 집집의 아래목을
뜨겁게 뜨겁게만 더웁히고있으니...

어느덧 어둠은 겹히여가고

새날은 밝아오른다
대오에 울리누나 출발의 나팔소리
눈발속을 헤쳐가는 행군의 대오!
뒤에 남긴 불무지는 사그라져도
병사의 가슴속엔 세차게 타오른다
아름할수 없는
조국수호의 뜨거운 불길이—

새날이 밝아올 때

새날이 밝아온다
푸름푸름 흰해지는 저 멀리 하늘가
어둠을 밀어내며 드러나는 산발들
행군으로 달아오른 병사의 얼굴빛은
차츰 붉어지는 노을속에 비끼는듯

귀덮개 내리썼던 모자를 벗자
뽀얗게 피어나는 더운 김
아름찬 긍지로 가슴은 부풀린다
또 한밤— 병사는
조국의 안영을 지켜냈으니...

눈앞에 펼쳐지는 흰눈덮인 전야여!
적재함에 가득히 두엄을 싣고
코깎을 일구는 툽툽— 발동소리
새날의 장엄한 출발을 알리는데

마을어로 길게 뻗은 동구길에는
어깨마다 기발대 하나씩 메고
협동별로 향하는 분주한 발걸음들...
입김 서리는 싱싱한 얼굴들에
그득히 맺히는 웃음꽃 웃음꽃

알기나 할가 저 사람들은...
병사가 새워온 기나긴 한밤을
사나운 눈보라와 어떻게 싸웠고

허리치는 눈속 헤쳐 넘은 령은 얼마인지

이 땅에 후더운 숨결을 물었으며—
누군들 모르랴 병사의 헌신을...
우리의 행군대오를 우러러
뜨거움의 인사를 보내지 않느냐
높이 든 한손을 힘껏 저으며...

순간!
한없는 긍지로 들끓는 심장은
금시라도 가슴 빼개고 튀어나올듯
이 하루— 조국은
얼마나 큰결음 내짚을것인가
조국은 얼마나 멀리도 전진할것인가

오, 몇백의 새날을 이렇게 맞는데도
병사에겐 한순간 후회도 없으리
찬눈속에 부대끼며 지새워온 그밤이
이 땅의 새날을 떠받들고있음에...

장쾌하여라!
이 심장을 통채로 안아올린듯
하늘가득 뿜어오르는 밝은 해살이여
병사는 행군길에서 맞고야말리라
머지않아 이 땅에 환히 밝아올
최후승리의 아침노을까지도!

강반우에서

젊음이로다!
몇번 드세찬 도끼질에
강관같이 두렵던 얼음장에도
평— 구멍이 뚫리고
그밑에선 강물이 흐르는 소리...

묵직한 장구류 벗지도 않은채로
얼음판을 그러안듯
병사는 엎드린다
갈증에 타는 입술 물면에 대이고
꿀꺽... 꿀꺽...

온 강을 통채로 마셔버릴듯

험한 산발 넘고넘어 몇백리더나
물통의 물은 마른지도 이미 오래—
무쇠가마런듯 확확 다는 가슴에
한모금 강물은 왜 이리도 시원할가

억수론 눈보라속에서도
잠시도 식지 않은 불붙는 가슴
마시는것만으로도 그 어이 성이 차랴
쫄르륵 쫄르륵...

군용물통에 담겨지는 맑은 물
땀으로 먼지로 얼룩진 등근 얼굴
즐겁게 담아내고 강물은 흐르는데
허리 쪽— 펴고 일어서는 병사의 눈가에
렝룽히 비끼는 곳 그 어드메—

오, 행군길 행군길
병사가 갈길은 아직도 멀고먼데
가슴엔 이글이글 불이 붙는다
그 어이 식으랴! 병사 이 가슴!
한나산 이끼오른 바위우에 걸터앉아
백록담의 쨍한 물 들이키기 전에야!

눈덮인 운동장을 지나며

산굽이 돌아서니
마을 하나 나선다
크지 않은 산골마을 흰눈덮인 운동장에
여기에서 저기로
저기에서 여기로
설새없이 뛰어다니는 저 아이들!

추위며 손시림은 잊은듯 하다
장갑이며 모자랑은 어디에 쟁개치고
더러는 솜옷마저 벗어던지고
무릎치는 눈판우에 공을 따라 구울며
깔깔깔 웃어대는 저 아이들!
달아오른 얼굴들엔 주먹같은 땀방울

온 나라에 굽이치는 체육열풍이
저 작은 가슴에도 깃들었는가
어허 저것 봐라 공 빼모는 저 솜씨
래일의 축구명수 예서 보는듯

하늘로 솟구치는 알락달락 축구공
절로 저절로 등— 뜨는 마음
내 만일 대오에 선 병사가 아니라면
저속에 뛰어들어 한뫼을 하련만…

아직은 모르리라 저 아이들이야

병사가 왜 이런 행군길을 가는지…
무엇을 위해 내 무엇을 위해
더운 땀 아낌없이 이 길에 바치는지…

행복한 아이들—내 동생들아!
끝없이 날아오르랴! 활개를 쭉 펴고—
이 작은 운동장을 훨훨 벗어나—
그 누구도 못 앗으리 너희들의 꿈!
그 꿈이 나래퍼는 크지 않은 운동장이
병사가 목숨걸고 지키여가는
조국의 귀중한 한 부분임에…

오, 병사에겐 벌써 보이는듯싶구나
부러움 찬 시선들을 한껏 담아안으며
세계의 하늘가에 휘날리는 공화국기!
금시라도 귀전에 들릴듯 한 우리 노래!
아침은 빛나라 이 조선
은금의 자원도 가득한…

병사가 보내는 뜨거운 축복인듯
눈덮은 하늘에선 따사론 해살이
아이들의 작은 몸을 그러안는데
꿀을 넣는 아이들의 열기편 함성—
이 가슴에 크낙한 당부로 새겨짐은…

모닥불가에서

밤어둠이 자오록히 깃드는 골짜기에
불어치는 눈보라는 여전히 사나운데
이글이글 타오르는 모닥불우에
군용밥통 여러개 나란히 걸렸다

원, 무슨 성미 이리도 급할가
어느새 못 참을듯 보글거리며
푸푸푸— 새어나오는 하얀 김…
취할듯 풍겨오는 구수한 밥냄새…

전우여 내 구태여 무얼 숨기랴
조용히 스미는 어릴적 추억을

뜨스한 구들장우에서
저녁밥상 퍼놓던 고향집아래목을

어머니 담그신 시벨건 통김치
얼벌벌한 호박국에 땀 뻘뻘 흘릴 때
내 어이 알았으랴
창밖엔 눈바람 울부짖는 그밤에도
흰눈덮인 어느 산중 모닥불가에선
군용밥통 걸고앉은 병사들이 있은줄…

하지만 그것은 저 멀리 추억!
오늘엔 나도 이 땅의 병사—

행군길에 지은 밥 벌써 몇끼나
눈보라 헤쳐온 하많은 령길에
아직도 따스한 모닥불자리들...

야전밥통 밥맛을 모르고서야
이 땅의 청춘이라 뗏뗏이 말하랴
수호자의 뚫는 피로 고이 덮혀온
그을음끼 이 밥통이 가르치지 않느냐

전우여 이젠 그만 불을 지피게
들리지 않나 밥жат는 소리

후더분한 된장국이 설설 끓으니
어서 밥통뚜껑 열어제끼게
배가 든든해야 천리길도 간다네

...
오, 해기운 령길에 칼바람 세차고
강추위 무섭게 덮쳐들어도
병사의 눈가에 흐뭇이 안겨드는
행복한 가정들의 푸집한 저녁상!
내짚는 발걸음에 날개를 다는구나

흰눈이 내릴 때

눈이 내리네 흰눈이 내리네
행군길에 수북이 내려와 쌓이네
얼어붙은 대지를 포근히 꺼안으며
춤추듯 내리며 쌓이는 눈송이

눈이 내리네 흰눈이 내리네
강추위에 떠돌던 산과 들마다를
가볍게가볍게 어루만지며
눈에 보이는 하많은 모든것
온통 하얗게 물들이고물들이며...

눈이 내리네 흰눈이 내리네
어린시절 애뜻한 추억을 담아주네
눈내리는 날이면 왜 그리도 기뻐던가
눈도 함뻍— 웃음도 함뻍—

눈이 내리네 흰눈이 내리네
집뜰엔 눈사람 날보며 마주 웃고
소꿉동무들 눈팔매질 성수나고...
발목에 감겨도는 복슬강아지
저도저도 흥에 겨워 꼬리 흔들고...

눈이 내리네 흰눈이 내리네
머리를 젖힌채 바라보는 하늘가엔
뽀얀 눈발이 쏟아져내리고

두팔가득 벌리고 한가슴에 받아보는
눈송이 눈송이 하얀 눈송이

눈이 내리네 흰눈이 내리네
눈판마다 피여날 행복의 웃음을
피더운 심장으로 고이 지켜선
병사의 모자우에 어깨우에 하얗게...

눈이 내리네 흰눈이 내리네
티 한점 아니 섞인 하이얀 눈송이...
오로지 이 땅의 안녕을 지켜
묵묵히 바쳐가는 깨끗한 그 마음을
거울처럼 비껴안고 흰눈이 내리네

눈이 내리네 속삭이며 내리네
내리는 눈송이 이리도 희고흰은
행군길에 병사가 굳건히 서있으며—
이 땅에 내리는 희디흰 눈에는
한점의 불먼지도 섞일수 없음을...

눈은 내리네 내려와 쌓이네
이 가슴에 아름답할 뜨거운 불덩이
수호자된 긍지감을 깊이깊이 심어주며
내리네 눈이 내려와 쌓이네

나는 조국의 병사

힘겨운 행군길...
목적지는 아직도 보이지 않는다
목에선 확— 단김이 끊고
쩍절한 땀방울에 눈은 아리다
그래도 가슴속엔 차오르는 긍지
아, 나는 병사다!

《급보통!》

《약진—》
《엎드렷!》
구렁은 연방 내려지누나
헐치 않아라 참된 병사로 자라난다는것은
허나 내 어찌 주저앉으랴
불이 붙는 가슴은 마냥 웨친다
나는 나는 병사라고...

그렇다!
내 만일 병사가 아니라면야
이리도 용감할수 있으랴
차디찬 얼음물에 주저없이 뛰어들고
아찔한 칼벼랑은 어이 튼으랴

철없던 시절에야 내 다는 알았으랴
끝없이 안겨들던 그 사랑 그 행복
어떻게 마련되고 지켜지는줄...

병사된 오늘에야 알게 되노라
땀과 피로 찍어가는 행군길우에
그 시절의 행복이 없혀있음을...

전호가에 잇대고 사는 청춘은
힘겨워도 더없이 보람찬 삶!
그래서 조국이 값높이 불러주는
아, 병사! 나는 병사다!

장구류는 묵직하게 몸을 압박하여도
조국과 한피줄로 이어진 심장은

이렇게 세차게만 높뛰고있으니
내 어찌 순간이나마 비겁할수 있으랴
이 몸을 병사로 키워준 조국앞에

병사의 행군길 끝은 어드메—
피발오른 병사의 눈가에
푸른 파도 출렁이는 남해가 보이노니
조국이어! 세워다오!
통일대전 맨 앞장에
병사—그대의 아들을

그 어떤 값진것에도 비기지 못할
병사의 부름 안고 나는 가노라
아직은 멀고먼 병사의 행군길...
그 길에서 이 한몸 작렬하는 폭탄되어
최후승리 불보라로 훔날린대도
선군태양 품속에서 길이 영생할
오, 조국이어! 조국이어!
나는 그대의 병사다!

(조선인민군 군인)